

폼페이와 유적

의사 이아히쿠스가 트로야의 용사 아이네이아스의 대퇴에서 화살을 빼내고 있는 모양을 그린 폼페의 프레스코화,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아스의 상처가 이다 산에서 뷔너스가 수집한 박하꽃을 써서 치료된 것을 기술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란 흰가루 벽면이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해 그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기법으로 주로 기원전후에 많이 사용됐던 것으로 아직도 그 색채가 보이는이로 하여금 근대에 그린 그림으로 착각 하게한다.

나폴리 국립고고학 박물관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